

보도설명자료 (‘20. 1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재검토위원회는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설계·논의 중이며
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존중하여 적기에
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(한국경제,
1.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재검토위원회는 국민·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
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·논의 중입니다.
 - 그 과정에서 위원회 논의는 재검토준비단 건의(전국 공론화를 먼저
시작하고 그 다음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)하도록 하고, 원전내 저장시설의
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
재검토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)를 존중하며 진행 중입니다.
- ◇ 월성원전 포화시점은 전문가검토 의제에 포함되어, 방폐학회 연구
용역 결과 및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.
 -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“원전 내 저장
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”될 수
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- ◇ 1월 28일 한국경제 <월성 원전 3기 내년 말 가동중단 위기>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월성원전 포화는 ‘21.11월이며, 4월까지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
월성2~4호기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음
- 월성원전 3개 호기가 동시에 가동 중단될 위기지만, 산업부와 재
검토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재검토위원회는 국민·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
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수렴 프로그램 설계·논의 중임
 - 동 과정에서 원전산업계·시민사회계·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
참여한 ‘재검토준비단’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
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

* 원자력계(3명), 지역(5명), 시민사회계(3명) 등 총 14명, 6개월간 운영(‘18.5~11)

- ※ 재검토준비단 건의서에서는 ‘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
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’하도록 하고, ‘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
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
재검토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’라고 명시

< 재검토준비단 건의사항3(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) 발췌 : >

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
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,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
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. 이 과정에서,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
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

- 월성원전 포화시점 전망은 전문가검토 의제로 포함되어 있으며, 방폐
학회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음

* 월성원전 포화시점 전망(‘21.11월)은 방폐학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치(‘18.12월
기준)로, ‘18.12월 이후 원전 운영·정비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-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서에 따라 의견수렴이
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는
동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

*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관련 경과 :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출범(‘19.11.21) 이후
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중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(044-203-5340) / 류재형 사무관(5318)